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고유석

목 차

I. 서론

1. 들어가며

II. 『광기의 역사』

1. 『광기의 역사』 소개
2. 고전주의 시대 이전 중세시대의 광인
3. 고전주의 시대의 광인-이성이 배제한 광인
4. 『광기의 역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III. 『감시와 처벌』

1. 『감시와 처벌』 소개
2. 신체형
3. 근대적 감옥의 등장
4. 일망 감시 체제(판옵티콘)
5. 『감시와 처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들어가며

푸코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서양문명의 핵심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하고 소외된 비이성적 사고, 즉 광기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 관계를 파헤쳤다. 그리고 1970년대에 부르주아 권력과 형벌제도에 대한 분석물인 『감시와 처벌』을 저술하였다. 이 저술에서 푸코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한 억압적 통치 구조를 파헤쳤다. 인간이 알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억압하는 권력과의 관계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푸코의 저술들은 방대하지만 푸코의 일관된 작업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인간을 내리누르는 권력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광기의 역사』 그리고 『감시와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학원에서는 항상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지문으로 출퇴근이 관리되고, 목에 걸린 사원증이나 학생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수도권 시민이 현관문을 나서면 하루 평균 83번 CCTV에 찍힌다고 한다.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Paul Michel Foucault)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권하고 있다.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광인은 미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중세시대에서는 광인의 말은 피안의 시계를 엿볼 수 있는 표식이기도 하고, 인간 본성의 비밀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면서 어우러져 함께 살았다. 그런데 17, 18세기에는 광인들이 사회와 격리되고 감금되어 ‘비정상

■ 졸업논문

의 대표'가 된다. '인간의 표준에 못미친다'라고 판단되면 강제수용소에 넣어서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길들인다. 18세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해 정신병원이 건립되고, 격리 수용하며 감금시켰다. 그런데 왜 광기를 이전 시대와 달리 수용소에 고립시키고 격리했나? 바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이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권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근대에서 이성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합리적 학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회적 질서와 권력의 질서와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근대사회에 맞는 이성, 표준에 못 미치는 비이성이 질적으로 차별화 되었고, 광기, 즉 '이성에 낯선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억압한다.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형벌제도의 변화를 따라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통제하고 예측시켜왔는지 보여준다. 푸코가 감옥을 선택한 것은 감시권력과 감시당하는 자가 명확히 대비되는, 즉 보이지 않는 규율 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세기까지 절대 왕정시대의 형벌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화형이나 가혹한 형태의 가혹한 신체형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금형과 강제노동을 통해 감시하고 처벌한다. 18세기말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은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을 만들었다. 감옥의 중앙에 감시탑과 그 주위에 원형으로 감방이 배치된 구조이다. 중앙의 감시탑에 강한 빛을 통해 간수는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지만 감시를 당하는 죄수들은 중앙 감시탑의 빛으로 인해 간수를 볼 수 없다. 권력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감시를 당하는 측은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죄수들은 감시의 시선 속에서 '자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미셸 푸코의 철학

기검열'을 스스로 하며 권력의 요구에 따라 규율에 복종하고 '내면화'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것이 원형감옥의 위력이다.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는 권력이 통제와 감시를 비가시적으로 숨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보이지 않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우리의 신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관찰하기 쉽게 분단 별로 가지런히 앉아있고 교단은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기 좋게 배열한다. 교사는 한눈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도록 감시카메라를 통해 통제한다. 권력의 눈은 모든 것을 감시한다. 감옥, 정신병동, 군대, 학교, 공장과 회사에서 감시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을 통제대상으로 보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전화통화, 이메일, 직원증을 통해 위치파악과 화장실에 간 횟수까지 다 표시한다. 학교, 회사, 군대, 가정 등에서 시간 면에서는 '시각과 결석', '일의 중단'이, 활동 면에서는 '부주의와 태만, 열의 부족'이 품행 면에서는 '건방짐과 반항'이, 언어 면에서는 '말대꾸와 수다'가, 신체 면에서는 '불결함과 비뚤어진 자세, 부적절한 몸짓'이 모두 일탈이 되고 처벌 사항이 된다. 이전 시대에는 이것들이 부도덕이었지만 지금은 '일탈'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 권력이 일상행위의 가장 미세한 측면까지 침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규율하는 사회, 나아가 인간의 정세성과 자화상 자체를 창출하는 '규율 사회'이다. 그는 사회구조가 우리를 지배하며 권력이 그 구조 속에서 각종 장치를 통해 은밀하게 행사됐음을 감옥, 광기, 정신병원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알려준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대한 진단과 고발을 통해서 푸코는 보다 인간적인 향

기가 살아 있는 휴머니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광기의 역사』

1. 『광기의 역사』 소개

광기의 역사는 중세에서 19세기까지 이성중심의 사회에 의해서 감금되는 광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르네상스 시절만 해도 광기는 멸시당하고 기피되었지만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데카르트 이후에 고전주의와 이성, 합리주의가 서양 근세 근대시대를 지배하자 광기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고 당연히 모호하게 비이성과 동일시되었던 광기는 고전주의 시대의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광기의 역사는 광기의 의미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밝히려 한 점에서 광기에 대한 정신의학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이 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서양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이성 중심주의의 횡포를 공격하고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된 비이성적인 요소인 광기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는데 있다. 푸코에게 있어 광기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적 가치관이 확립되던 17세기와 18세기의 지배문화가 배척했던 인간적 요소이다.

2. 고전주의 시대 이전 중세시대의 광인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유럽에서 정신병자를 감금한 것은 17, 18세기에 근대적인 도시와 가족,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광인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고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중세 유럽에서 광인은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광인은 '죄에 빠진' 사람의 구체적 모습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이른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살아있는 교훈'으로 교화적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광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 살아 있는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중세 유럽에서는 악마나 신, 성령, 천사들이 인간들과 함께 세계를 나누어 갖고 있었다. 푸코는 이렇게 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기는 환한 대낮에 논의되었다. 『리어왕』을 보라. 『돈키호테』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 되어 광기는 갇히고 고립되었으며 수용의 요새에서 이성예, 도덕규범예, 그리고 도덕의 규범적 획일적 어둠에 묻혀버렸다.9)

근대 이전에는 광인이 '인간적 질서'의 내부에서 정당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다.

3. 고전주의 시대의 광인- 이성으로부터 배제된 광인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의 광기에 대한 문제의식

9) 푸코, 『광기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2003. 재인용: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p.95

▣ 졸업논문

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광범위한 자료를 관통하고 있다. 여기서 푸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1656년 파리에서 구빈원 설립과 함께 6,000명에 달하는 방탕자와 범죄자들을 광인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대감호’의 사건과 18세기 중엽부터 광인들만의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 처음으로 근대적 정신병원이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거쳐 광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격리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비이성적인 것일 뿐 질병이 아니었던 광기가 질병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 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로 들어서면서 천사와 악마와 인간이 세계를 나누어 갖기 위한 장치였던 광인은 별이 드는 장소에서 추방되고 만다. 17세기 인간주의적인 관점이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사회에서 광인을 위한 장소가 사라졌다. 세계는 표준적인 인간만이 사는 장소가 되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다.

푸코는 17세기 유럽을 ‘대감금 시대’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 시대에 이르러 근대 사회는 ‘인간’ 표준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정신병자, 기형인, 부랑자, 실업자, 거지, 빈민 등 다양한 ‘비표준적인 개체’)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했기 때문이다. 표준화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과격해졌고 근대 유럽의 감금 시설에는 자유 사상가, 성적 도박자, 무신론자, 주술사에서 낭비벽이 있는 사람까지 이른바 ‘표준에서 일탈한’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갇히기에 이른다.

17세기에 광기가 ‘신성을 잃은’듯 되어버린 것은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우선 빈곤이 도덕의 지평에서만 자각됨으로써 빈곤의 위세가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광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생겨났다. 이 이해 방식은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고 사회적이다. 중세의 인간적 풍경 안으로 광인이 친숙하게 나타난 것은 광인이 다른 세계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광인은 도시민들의 질서와 관련된 ‘통치’ 문제의 바탕 위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존재가 된다. 예전에 광인이 사회에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광인이 배제되는 까닭은 그가 바로 이곳에서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불량자 사이에 끼기 때문이다.¹⁰⁾

푸코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것을 여기에 써놓았다. 광인은 ‘다른 세계’에서 온 ‘손님’일 때에는 공동체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이 세계의 시민’에 편입될 때에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다. 즉 광인의 배제는 그것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이기에 이루어졌다. 광인은 이해되고 명명되고 분류되었고 배제되었다. 광기를 배제한 것은 다름 아닌 ‘이성’인 것이다. 이렇게 광인의 조직적인 배제가 진행됨에 따라 광기를 인정하는 사람도 변한다. 누가 광인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사법’에서 ‘의료’로 이행했다. 17세기에 광인의 감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관이었다. ‘반사회성’이라는 면에서 광인은 가난한 자와 동격이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면서 여기에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

10) 푸코, 『광기의 역사』,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2003. 재인용: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p.97

■ 졸업논문

지게 된다. 광인만의 별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들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증상은 관찰되고 분류되고 병리학적 징후로서 범주화된다.

광인은 사법관의 의한 수감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에 의한 치료의 대상이 된다. 얼핏 광인의 처우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단단한 격리’로부터 ‘부드러운 격리’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공범관계가 암묵적으로 생겨난다. 그것은 의료와 정치의 결합, 즉 ‘지와 권력’의 결합이다.

고대의 권력은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동안 점차 그 윤곽이 애매해진다. 그것은 권력이 비권력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감축이 부드러운 이성적인 대리인인지 학술적인지를 통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4. 『광기의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

『광기의 역사』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권력에 의해 묻혀버린 비이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성과 비이성을 나누는 그런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이성에 의해서 탄압받는 광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다. 푸코는 실업자, 반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권력구조에 의해 죄인과 같이 감금되고 광인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Ⅲ. 『감시와 처벌』

1. 『감시와 처벌』 소개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감시와 처벌』은 범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처벌 방식의 권력과 규율사회에서 살아가는 근대적 개인의 상관관계를 푸코의 독특한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한 책이다. 첫째, 외형적인 형벌의 변화 또한 결국 권력의 자기 보호책이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보다 정교해진 행형기술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국가관리기술로 발전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감옥, 소년원 등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복종과 시간표에 의한 인력관리, 규율에 대한 강조가 군대와 학교, 병원, 공장 등 사회 전체에 적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신체형

‘중세시대’에는 신체형이라는 형벌이 종종 발생하였다.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권력’은 왕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왕권은 신민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체형은 하나의 ‘성대한 의식’처럼 진행되었다. ‘광장’에서 진행되는 신체형은 범죄자에게 각종 신체적 형벌을 가한다. 이 형벌의 전체 과정을 신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왕권은 신민들에게 왕권의 높은 권위, 즉 자신들은 신민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함은 쳐다보지 못할 존재라는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은 몇몇 부작

■ 졸업논문

용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감을 대중들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신민들에게는 죄인이 불쌍하다는 인식, 사회에 대한 불만을 폭발하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폭동과 같은 불상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구상할 무렵, 근대적 감옥이 탄생한 시기가 18세기 후반이며, 이 감옥은 이전의 신체형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밝힌 바 있다. 근대적 감옥 이전에 신체형이 중심적 처벌 방식이었던 중세나 고전주의 시대 혹은 18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은 죄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잠시 머무는 대기실 같은 역할을 했다. 지하독방이라고 불리던 신체형 시대의 감옥은 죄수를 사형 시키거나 석방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잠시 붙잡아두는 곳이었다. 이 당시의 신체형이란 『감시와 처벌』의 서두에서 묘사된 다미앵의 끔찍한 신체형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인의 신체를 절단하고 분해함으로써 고통을 극단적으로 극대화하는 처벌방식이다. 이것은 단순히 죄인의 극단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형벌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 죄인의 고통을 최대한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식이기도 하다. 『감시와 처벌』 2장의 “신체형의 호화로움”에는 신체형을 통한 정치적 행사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신체형은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군주 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군주권을 화려한 형태로 과시하면서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그것을 회복시킨다. 아무리 성급하고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형벌이라도, 공개적 처형은 침해받은 후에 회복하려는 권력이 행사하는 일련의 대규모 의식들 <예를 들면 대관식, 정복한 도시에서의 국왕의 입성식, 반란을 일으킨 신하의 항복식>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군주를 경시한 범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적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이다.¹¹⁾

이러한 신체형의 의식은 왜 종식된 것일까? 앞서서 말했듯이 대중들의 사회적 불만 표출에 있을 것이다. 공개적 처형을 구경하는 민중들의 끔찍한 폭력의 장면 앞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분노를 갖게 되면서 처형당하는 죄인에 대한 동정심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민중들에게 무섭게 처형당하는 죄인을 본보기로 삼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공개 처형한 것이 오히려 권력의 의도와는 달리 죄인에 대한 민중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초래하였다.

2. 근대적 감옥의 등장

신체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권력은 신체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형벌이 바로 감옥살이다. 근대적 감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과거 신체형이 인간의 신체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감옥살이는 인간의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했다. 이 정신 개조라 함은 한 개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11)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2003, p. 52.

■ 졸업논문

만드는 형태로, 재판을 통한 징역 기간의 설정은 범인이 개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화, 즉 권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죄인은 이러한 권력의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가시성, 그게 권력이 원하는 바이자 과거 중세 시대의 왕권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의 폭동의 위험부담을 없애고, 행사에 드는 과도한 비용을 감소하면서 또한 범죄인들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 방식, 즉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강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근대적 감옥의 징역형이다. 다시 말해서 18세기 말에 화형과 교수형 같은 무서운 신체형이 사라지고 감옥에 죄수를 가두는 부드러운 감금형이 등장한 것은 권력의 인간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경제학적 필요성 때문이다. 푸코는 1780년대부터 1830년까지 유럽에서 공개처형대가 사라지고 죄수들을 감금하는 거대한 감옥들이 대대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다. 근대적 감옥의 탄생이 단순히 권력의 처벌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 아니라 규율사회의 도래를 가르쳐주는 현상임을 푸코는 감옥의 기원과 관련된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감옥의 기원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다. 감옥은 하나의 발명품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감시, 통제, 개인의 신원확인, 개인의 태도나 행동, 능력에 관한 철저한 경계, 이 모든 기술의 발명품이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다. 16세기와 17세기부터 군대, 초등학교, 중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이 모든 기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은 세련되고 일상적인 권력, 신체에 대한 권력의 기술이다. 감옥은 규율시대의 최근의 얼굴이다.¹²⁾

푸코의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근대적 감옥의 탄생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뤄진 규율시대의 산물이고, 이것은 16세기와 17세기부터 군대나 학교 등에서 관행되어 실행된 “신체에 대한 권력의 기술”의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4. 일망감시체제(판옵티콘)

형벌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권력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일망감시시설(panopticon), 즉 교도관 한명이 여러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리의 효율성을 불러 일으켰고 건축학, 광학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해 오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죄인의 죄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학, 병리학의 발달 역시 이와 연관 되어 있다. 즉, 권력은 자신이 필요한 학문만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율사회와 함께 창시된 전면적인 감시는 각각의 제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심급을 통해 개인들 전체가 언제나 가시적이 되도록 요구한다. 18세기 말에 제레미 벤담은 당시의 사회 내에서 권력이 취하는 형태들에 대한 정밀한 묘사를 구상하였고 또 이 감시, 요컨대 일망 감시체제(판옵티콘)가 가

12) Michel Foucault, *Dits et Ecrits* II, p. 717. 재인용 : 미셸푸코와 현대성, p.121

■ 졸업논문

능한 건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푸코는 이 일망 감시 체제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일망감시체제는 원환 형태의 건물이다. 건물의 중간에 뜰이 있고 뜰의 중심에 탑이 있다. 원환의 건물은 안쪽으로도 향하고 바깥쪽으로도 향하는 작은 감방들로 분할된다. 각각의 작은 감방에는 시설의 목적에 따라 글쓰기를 배우는 어린이, 일하는 노동자, 자신을 스스로 교정하는 수감자, 자신의 광기를 현실화하는 광인이 존재한다. 중앙의 탑 안에는 감시인이 있다. 각각의 감방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동시에 면해 있기 때문에 감시인의 시선은 감방 구석구석을 관통할 수 있다. 어두운 지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개인이 하는 모든 일은 덧창과 반쯤 닫힌 창을 통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감시인의 시선에 노출되지만 반대로 누구도 감시인을 볼 수 없다.¹³⁾

이러한 설계도는 일망감시체제의 모든 특징,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각각의 개인은 자신들이 실제로 감시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 규율은 보여 질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각각의 개인은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순간에 감시인의 시선이 자신에게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목표로 하는 바는 개인 내에 규범을 삽입

13) Michel Foucault, *'La verite et les formes juridiques'* p.594. 재 인용: 미셸 푸코의 휴머니즘, p.89. 판옵티콘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 설계도와 관련해서는 『감시와 처벌』에 포함된 삽화 참조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

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무도 그를 응시하지 않을 때조차도 개인은 제도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애초에는 감옥용으로 고안된¹⁴⁾ 일방 감시 체제는 일반적인 모델, 즉 특수한 시설에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모든 시설에 확산된 관찰 구조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판옵티콘은 더 많은 권력을 창출하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구조를 띄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구조는 학교에서도 선택할 수도 있고 공장이나 병원에서도 채택할 수도 있으며 요컨대 감시가 행해져야 하는 모든 폐쇄된 공간에서 채택할 수 있다.

5. 『감시와 처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간적 장치가 아니라 이성 중심적 사회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가치기준으로 광인을 추방하고 감금해온 장소로서 인간에 대한 권력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감옥은 범죄자들의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권력의 사회통제를 위한 전략의 소산이며 그 범죄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감옥의 탄생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14) 감옥에서 판옵티콘이 기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규율 사회 제도 전반(학교, 병영, 정신 병원, 공장 등)이 어떻게 감옥을 모델로 해서 구조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IV. 결론

푸코는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과 같은 대표작에서 매우 정교하게 권력의 다양한 존재 방식과 작동방식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인간과 제도를 통제하고 규율하게 되는지 아주 치밀하게 보여준다. 푸코는 프랑스 역사 속에서 광인이라고 분류되는 사회 속에서 배제된 자들의 기원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프랑스 사회는 정상인이라 불리어지는 주류 사회인에 의해 병자, 죄수, 걸인 등 정상인의 시선에서 이질감과 혐오감을 주는 자들을 병원이나 감옥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감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들을 배제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감옥의 계보학을 추적하면서 감옥이 어떻게 인간을 감시하고 훈육하면서 규율권력으로 작용하는지 그만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는 근대적 권력주체가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감옥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체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푸코는 광기나, 감시, 처벌과 같은 언어를 사유하면서 계보학적 추적을 하면서 이러한 용어의 기저에 권력이라는 배제와 박탈의 매커니즘이 얼마나 반이성적으로 작동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폭력적이고 우발적인 인간이 행사하는 권력이 사회 속에서 성찰적, 합리적 권력으로 제도화되기보다는 자의적, 편집증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름을 차별과 배제의 담론으로 구체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도권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어야 하는 그들 몫의 사회적 공공자산의 착취를 통해 그 사회가 포용하고자 하는 자

고유석: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본
...푸코의 철학

들의 몫으로 불공정하게 전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가능한 배제의 정치이며 이렇게 희생된 자들은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로서만 주류사회에 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수자 운동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섰는데 이는 그가 권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실천하는 양심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진정한 지성인 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여성이나 흑인, 게이, 성소수자, 노동자, 빈민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으로 『광기의 역사』, 그리고 『감시와 처벌』과 같은 책들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이성을 앞세운 권력을 고발하는 푸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클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오생근, 『미셀푸코와 현대성』, 나남, 2013.
2. 우치다 타츠루,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이경덕 옮김, 갈라파고스, 2010.
3. 디디에 오타비아니, 『미셀 푸코의 휴머니즘』, 열린 책들, 섬세광 옮김, 2010.
4. 미셀 푸코, 『광기의 역사』, 오생근, 2003.
5.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오생근 옮김, 2003.
6.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 철학』, 동녘, 2013.
7. 최진기,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스마트북스, 2014.
8. 남경태, 『한 눈에 읽는 현대철학』, 휴머니스트, 2012.
9. 시몬 듀링, 『푸코와 문학』, 동문선, 오경심·홍유미 옮김, 2003.
10. 페터 슬로터다이크, 『플라톤에서 푸코까지』, 김광명 옮김, 2012.